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1	㉓	2	㉕	3	㉔	4	㉔	5	㉒
6	㉕	7	㉔	8	㉑	9	㉔	10	㉑
11	㉒	12	㉕	13	㉑	14	㉒	15	㉓
16	㉕	17	㉒	18	㉔	19	㉕	20	㉓
21	㉕	22	㉑	23	㉓	24	㉓	25	㉒
26	㉑	27	㉓	28	㉑	29	㉒	30	㉕
31	㉓	32	㉔	33	㉒	34	㉓		

해설

[1~3] (독서 이론) 박영목, 「독서 교육론」

이 글은 상위 인지의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한 독해 과정 조정 작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독자가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적절한 독서 전략을 활용하면 성공적인 독서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독서 목적에 따라 독서 행위를 조정하고,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면서 독해 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문맥 정보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고, 글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며 내용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독서 과정에서 읽은 내용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이해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독서 전략을 활용하는 등의 독해 과정 조정 작용도 성공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독서 연구에 따르면 독서 능력이 우수한 독자는 이러한 독해 과정 조정 작용을 능숙하게 수행하며,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한다. 반면에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독해 조정 작용에 부족함이 있으며, 글을 읽는 목적을 문자 해독에 두는 경향이 있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독해 과정 조정 작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쌓아 독서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1문단에 의하면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지적 행위로 인지 조정을 들 수 있으며, 인지 조정은 상위 인지 중 하나로 독해 조정 과정을 포함한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상위 인지는 어떤 과업의 성취를 보장하는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② 1문단에 의하면 문제 해결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자신이 시도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 등은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④ 2문단에 의하면 우수한 독자는 독서 목적에 따라 점검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 자신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⑤ 2문단에 의하면 동일한 수준의 배경지식을 가진 독자라 하더라도 독서 능력에 따라 배경지식을 독서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다르다.

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독자가 독서 과정 조정 작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독서 과정에서 학생이 독해 과정을 조정하고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 평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기>는 임상 심리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진로 독서 활동 상황에서 수행한 독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㉓는 책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낸 부분이다. 따라서 글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문맥 정보를 활용해 유추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② 학생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진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③ 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여 이해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④ 학생은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부분을 천천히 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꼼꼼히 읽는 방식으로 독서 행위를 조정하고 있다.

3.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보기>에서 을은 독서 목적에 맞는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글의 주제를 잘 파악했지만, 갑은 독서 목적에 맞는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하여 주제 파악에 실패한다. 한편, 3문단에서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위 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3문단에 근거하면 <보기>에서 주제 파악이라는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하여 주제 파악에 성공한 을이, 그렇지 못한 갑보다 상위 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을보다 갑이 독서를 문자 해독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을은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하고 주제 파악도 쉽게 했기 때문에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독해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갑은 독서 목적과 상관없는 독서를 행하여 주제 파악에 실패한 것으로 보아 독서 과정에서 인지 조정을 수행하는 능력이 을보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을은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독해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경험을 갑보다 많이 쌓아 왔다고 할 수 있다.

[4~9] (인문 주제 통합) (가) 장대익, 「다윈의 식탁」, (나) 김동규 외,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가) 장대익, 「다윈의 식탁」
모방이란 관찰을 통해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인데,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된다. 동일한 구조의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행동 차이를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따라 하는 인간의 모방 메커니즘은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나) 김동규 외,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불렀다. 밈은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한다.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밈에게는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할 때, 블랙모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별한다.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점 등을 들어 밈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밈 이론 지지자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신경 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려 시도한다. 밈 이론은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가)는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 할 때 차이점이 있다. 아이들과 달리 어린 침팬지들은 행동 목표를 관찰하기 어려울 경우 시범자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하는 인간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도킨스와 블랙모어의 견해를 바탕으로 밈의 특징과 유용성을 서술하고 있다. 모방에 의해 문화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밈은 복제자이자 행위자로 기능하는데, 밈의 관점으로 문화 전달을 설명하면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거울 뉴런에 초점을 맞춰 뉴런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문화에 초점을 맞춰 밈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유전자 전달을 중심으로 유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모방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는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밈이 확산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통해 모방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밈과 유전의 차이를 통해 유전자 복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가)의 3문단을 보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거울 뉴런은 어린 침팬지들과 달리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투명 상자 실험에서 어린 침팬지들은 먹이를 얻는 목표와 관련 있는 행동을 따라 하고 먹이를 얻는 데 불필요한 행동은 알아서 제거했다. 따라서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③ 관찰과 행동의 실행이 모두 필요한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가장 높다.

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A]에서 모방의 개념을, [B]에서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미미가 고구마를 물로 씻어 먹는 것을 관찰한 다른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로 씻어 먹는 것은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의 사례이다. 미미를 관찰하여 고구마가 있으면 물로 씻어 먹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 자체를 배운 것이 아니라면 모방에 해당되지 않는다. [A]와 [B]를 연결 지어 이해하면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모방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선천적 행동은 새로운 행동을 배운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미가 혼자서 고구마를 물가에서 씻어 먹는 것을 즐겼다는 것은 개인적 학습에 해당한다. 개인적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④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자손을 통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유전자의 전략과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를 더 많이 퍼뜨리려는 밈의 전략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오답풀이] ① 밈 이론에서 복제자이자 행위자는 밈이다.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본다. ② 밈 이

론에서 밭은 매개체가 아니다. 밭은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 ㉓ 밭은 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㉕ 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유전자 전달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독신주의 밭이 널리 퍼지는 것은 아니다.

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㉑은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는 설명이다. ㉒은 밭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고, ㉔은 밭 이론 지지자들이다. ㉑에 근거하여 ㉔이 ㉒을 반박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므로 밭의 존재나 기능을 옹호하는 것이 적절하다. ㉑에 근거하여 밭은 모방의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데, 모방의 과정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라는 물리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㉒ 거울 뉴런이 인간의 주체적 의지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㉓ 밭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㉔이 ㉒을 반박할 수 있는 말로 보기 어렵다. ㉔ 밭이 인간 외 영장류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㉑에 근거하여 도출하기 어렵다. ㉕ 밭은 모방의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데, 모방은 관찰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9.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불과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이다. ‘이르지 못한다고’는 문맥상 ‘불과하다고’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지나지 않는다고’ 정도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0~13] (사회) 박동진, 「물권법 강의」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동산에 비해 값비싼 물건인 부동산은 등기를 하여 그 권리관계를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편성되며, 한 물건에 하나의 등기 기록만 존재한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는 기입등기라고 하며, 완료된 등기에서 오류를 확인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한다.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에서 물권은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로,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㉒ 2문단에서 을구에는 전세권, 저당권과 같이 소유권이 아닌 물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재된다고 하였다. ㉓ 2문단에서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다. ㉔ 2문단에서 부동산 물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㉕ 2문단에서 한 물건에 대하여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여러 물권을 표시하기 위한 복수의 표제부가 붙을 수 없다.

1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이를 가리키므로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㉑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㉓ 매

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한다. ㉔ 매매대금의 지급이 마무리되면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다. 이는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㉕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몰아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성립요건주의는 공시를 갖추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 법제가 따르는 성립요건주의에서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㉑ 대항요건주의는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시를 갖추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주의에서는 등기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1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의 ‘이루어지다’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㉒와 ㉓의 ‘이루어지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㉔와 ㉕의 ‘이루어지다’는 ‘뜻한 대로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14~17] (기술) 이운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입자 제조」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을 결정화라 한다. 제약 등의 분야에서는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다.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의 밀도를 변화시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한다.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반응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응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이다.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혼합물에 넣어 혼합물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 용질을 고체 입자로 석출한다. RES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용매로 사용한다.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주로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사용한다. 이산화 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 압력 조절을 통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고,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적합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반응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이라고 하였다. GAS 공정에서 반응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응매는 혼합물의 용매와 섞이고 반응매와 섞이지 않은 용질은 혼합물의 용매와 섞여 있다. 따라서 반응매를 첨가한다고 하여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㉑ 5문단에서 RES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분사하여 고체 입자를 석출한다고 하였다. ㉓ 6문단에서 이산화 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㉔ 1문단에서는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결정화는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㉕ 6문단에서 초임

계 이산화 탄소는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서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하였다.

1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㉑은 결정화하려는 용질이 액체 용매에 녹아 있는 것이다. ㉒은 결정화하려는 용질이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녹아 있는 것이다. 5문단에 따르면 결정화 과정에서 ㉒의 초임계 유체는 기체가 된다.

[오답풀이] ㉑ ㉒은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섞인 것이다. 5문단에서는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㉒을 분사하여 고체 입자를 석출하는 과정에서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기체가 된다고 하였다. ㉓ 5문단을 통해 GAS 공정에서도 RESS 공정과 마찬가지로 처음 채운 혼합물의 농도에 따라 석출 가능한 용질의 양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㉑은 결정화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인 것이고, ㉒은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섞인 것이다. ㉕ 5문단에 따르면 ㉒은 결정화 공정에서 용매가 아니라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된다.

1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결정화 공정에서 초임계 유체의 밀도를 조절하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할 수 있다. 고체 입자의 석출은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 생성되는 데서 시작된다. 결정화 공정에서 초임계 유체가 용매로 사용될 때,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다. 이것은 과포화가 되면 단위 부피당 석출될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져서 결정핵이 많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지므로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오답풀이] ㉑ 4문단에서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고체 입자의 입도가 작아진다고 하였다. ㉓ 6문단에서 초임계 유체의 임계 온도는 상온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초임계 유체의 임계 온도는 물질별로 그 수치가 정해져 있다. ㉔ 초임계 유체의 밀도를 조절하여 초임계 유체가 다른 물질과 섞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4문단에서는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만들어지는 결정핵의 수가 많다고 하였다.

1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지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㉒보다 ㉑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은 것은 하나의 결정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더 적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㉑ ㉒와 ㉑에서 석출되는 A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녹지 않는다. ㉓ ㉒와 ㉑에서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B와 섞이는 속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과포화되는 속도도 다르다. ㉔ GAS 공정과 같은 결정화 공정에서는 처음 채운 혼합물의 농도에 따라 석출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정해져 있다. ㉕ ㉒는 ㉑와 비교하면 혼합물의 농도가 높고 ㉑와 비교하면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혼합물의 농도가 높으면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 결정핵의 생성이 빨라져 결정핵의 수가 많아지고 더 작은 고체 입자를 석출할 수 있다.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빠르면 과포화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더 작은 고체 입자를 석출할 수 있다.

[18~21] (현대소설) 이승우, 「오래된 일기」

이 소설은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에 잠재한 죄의식과 그 죄의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소설 쓰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나’의 죄의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죄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촌인 ‘규’의 뒤통을 가로챘다는 죄의식이다. ‘나’는 소설 쓰기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상처와 마주하고 죄의식의 연원을 재현하면서 자기 고백을 통한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은 관념과 현실을 넘나들며 인간의 내면을 탐구해, 소설 쓰기의 본질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나’는 일기를 쓴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면서, 과거에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 몇 개를 훔쳤던 일과 그때 느꼈던 불안, 두려움 등을 써 나갔다.

[오답풀이] ③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얼음과자를 사 먹은 뒤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가 그런 생각을 한 바로 그날, ‘나’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나’가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⑤ ‘나’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하여 죄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1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나’가 쓴 소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A]에는 같은 반 친구가 없어서 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과거의 일에 대한 내적 반응이 ‘나’의 목소리로 삽입되어 있다. ‘나’는 과거의 그 일이 순진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과거 자신의 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나’는 얼음과자를 사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난 뒤 두려움과 불안감에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㉞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본능적이고 즉흥적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래도록 지녀 왔던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얼음과자를 사 먹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 천 원짜리가 다섯 장이나 있으니 아버지가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진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쳐 얼음과자를 사 먹은 후에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는 천 원짜리가 고작 다섯 장밖에 없었다며 다섯 장이라는 지폐의 숫자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다. 지갑 속 천 원짜리 다섯 장에 대한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는 피곤과 수면 부족과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무엇에 썬 것 같이 소설 쓰기에 몰두하였다. ‘나’에게 있어 소설 쓰기는 고백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육체적 고통이 고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에 ‘나’가 치열하게 소설 쓰기를 한 것은 아니다.

[22~27] (갈래 복합) (가) 구강, 「총석곡」, (나) 장복겸, 「고산별곡」, (다) 백석, 「동해」

(가) 구강, 「총석곡」

이 작품은 회양 부사로 재직하던 작가가 관동 팔경 중 하나인 통천의 총석정 일대를 기행하고 지은 국문 가사이다. 총석정 탐승에 대한 기대, 총석정 주변 기암괴석에 대한 형용, 관동 팔경 중 총석정이 가장 뛰어난다는 찬사,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재를 찾겠다는 소회 등을 진술했다. 총석정 주변에 가득 들어선 돌기둥의 뛰어난 경치를 형용하면서 이를 완상하는 감흥을 다양한 고사와 결부시켜 노래하고 있다. 사실적이면서 개성이 넘치는 묘사와 함께 기암괴석을 집중적으로 노래한 점이 돋보인다.

(나) 장복겸, 「고산별곡」

장복겸의 문집인 『옥경현유고』에 수록된 이 작품은

총 10수의 연시조이다. 청산, 녹수, 석양, 신월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 시름을 잊고 자연과 더불어 소일하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작가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자인 ‘불고정’에서 노닐며 풍류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수>에서는 청산과 녹수가 어우러진 공간과 신월이 돌아나는 시간대를 설정하여 술을 앞에 둔 흥취를 드러내며 시름을 달래고 있다. <제4수>에서는 자연에 한거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남’과의 대립을 통해 부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은 종장의 표현을 통해 ‘손’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화자의 삶을 시종 지켜보며 그에 대해 온당한 판단을 내리는 이가 아니라, 화자의 삶의 한 단면이나 결모습만을 살피면서 이에 대해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화자는 ‘남’을 ‘망령난’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삶을 옹호하고 있다. <제6수>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수단인 술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공간에서 마시겠다는 뜻을 표출하면서 ‘물’과 ‘피’ 및 ‘달’을 언급하고 있다. <제6수>에서는 어떠한 시름이나 갈등의 표출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을 흥겹게 노래하고 있다.

(다) 백석, 「동해」

백석은 1936년부터 1938년까지 함흥의 영생 고등 보통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했는데, 이 작품은 작가가 함흥에서 발표한 네 번째 수필이다. 백석의 수필 중에서 바다를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 수필이 유일한데, 그는 이 작품에서 함흥과 인접한 동해의 매력을 전하며 낭만과 풍류의 정서를 밀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무더운 여름 맥고모자를 쓰고 맥주를 마시며 거리를 거니는 백석의 모습은 날아갈 듯 가볍고 흥겨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비네’라는 종결 어미로 끝나는 문장의 독특한 어조가 이러한 느낌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배루를 마시고’라는 구절은 다양한 물상들을 나열하는 연상을 낳고 있다. 동해의 안주에 대한 생각은 전복과 해삼을 거쳐 제주 배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며, 제주 색시에 대한 연정은 자신과 관계있는 여러 지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어떠한 도끼로 용이히 깎았으며 / 어떠한 승묵으로 천연히 골랐는고’, ‘끈 없이 묶었으되 틈 없이 묶었으며 / 풀 없이 붙었으되 흔적 없이 붙었으니’ 등에서, (나)의 ‘한 병은 물에 놓고 또 한 병 뒤편에 놀며’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의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운 듯 누인 듯’, (다)의 ‘제주 배 아즈맹이 몸집이 절구통 같다는 등’에서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3. [출제의도] 작품과 관련한 삽화를 고려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가)에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하여 총석정 주변의 기암괴석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우씨(하나라 우임금)나 ‘영장’ 등을 언급한 것은 아무리 솜씨 좋게 돌을 다듬어도 총석정 주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기암괴석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바람 불면 못 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에서 알 수 있다. ② ‘올라 보니 후면이라 전면으로 보오리라 / 배 대어라 사공들아 풍랑이 일지 않아 / 총파로 돌아 저어 총석 전면 보게 하라’에서 알 수 있다. ④ ‘기괴히 꾸뭇다가 세인의 노리게 되야 / 시 짓고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에서 알 수 있다. ⑤ ‘물로는 동해수요 피로는 금강산과 / 폭포로는 구룡이오 돌로는 총석이라’에서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작품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제6수>에서 ‘술’은 ‘물’, ‘피’, ‘달’의 자연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기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1수>의 종장은 해가 저물 무렵에 새 달이 뜨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신월’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서술 방식에 대해 파악한다.

(다)는 친구에 대한 생각이 술과 안주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안주에 대한 생각이 제주 배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며, 제주 배에 대한 생각이 여러 지인들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연상을 통해 동해의 다양한 안주와 제주 배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지인들의 사연을 열거하며 동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26.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은 화자가 은거하는 곳을 청산과 녹수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형상화하는 내용이고, ㉡은 아이들이 제주 배의 움직임에 따라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화자가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가롭게 지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1수>는 혼자서 술을 마시며 시름을 푸는 상황이고, <제4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손쉽게 평가하는 ‘남’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자세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장관을 다한 후의 다시금 혼자 말이 / 괴외기걸 하온 사람 이같은 이 있다 하면 /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코 찾으리라’는 총석정 일대의 훌륭한 경치와 비견할 만한 인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민관(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리는 표현이다. ④ ‘달에 논들 어떠리’는 달과 어울려(달빛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겠다는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달이라는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30] (현대시) (가) 정지용, 「장수산 1」, (나) 고재중, 「고요를 시청하다」

(가) 정지용, 「장수산 1」

이 시는 깊은 겨울 산의 고요한 정경을 ‘별목정정’을 통해 환기하며 시작한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는 절대 고요와 부동의 공간 속에서 화자는 조잘히 늙은 옷질 중의 맑고 깨끗한 정신적 경지를 뒤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깊은 산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심히 흔들리는 내면의 동요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차고 울연히 이 겨울을 견디겠다는 견고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흔들리는 내면의 시름 속에서도 정신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화자의 치열한 정신적 고투가 역력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나) 고재중, 「고요를 시청하다」

이 시는 초록으로 물든 오월의 마당을 둘러싼 깊은 고요를 노래하고 있다. 수국 송이처럼 몽실몽실 부푸는 오월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송순주 한 잔에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요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초록 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은밀한 연주를 들으면서 고요에 물들어 간다. 적막한 고금의 시골집 마루에서 마주한 오월의 고요를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28.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아름드리 큰 술’이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한 것은 깊은 산속에서 큰 나무들이 베어지며 내는 소리를 환기하여 깊은 산속의 고요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것을 통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이 환기된 것은 아니다.

29.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A]에서는 고요가 초록을 낳았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을 물들인 초록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B]에서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진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에 초록이 점점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이는 덩굴장미의 붉은 색채가 어우러지면서 오월의 계절감이 부각된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장수산의 고요에도 심히 흔들리는 시름을 안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회고녀!’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가 송순주 한 잔에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소박한 고요’와 ‘묵묵한 고요’를 담고 있는 인물들로,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잘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찌르렁’하고 들릴 것 같은 깊은 산속의 메아리 소리와 딱 한 번 들린 동박새의 울음 소리는 모두 고요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소리이다. 고요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가 부각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표현한 것이고, (나)의 ‘삼베 올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다.

[31 ~ 34] (고전소설) 작가 미상, 「이대봉전」

이 작품은 제목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활약 외에도 여자 주인공인 장애황의 활약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장애황은 남복을 입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큰 공을 세운다. 이와 같은 장애황의 이야기는 당대의 여성 독자층 증가, 시대에 따른 여성 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인 이대봉과 장애황은 부모끼리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려서 고난을 겪고 따로 떨어져 생활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후 만나 혼인해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31.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흥노왕은 황제가 항복하러 나옴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진을 굳게 하지 않았다가 뜻밖에도 진중이 대란한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흥노왕이 대봉의 공격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선우는 장대에 올라 촉날이 명나라 군에 대패하고 죽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도망쳤다. 이를 통해 선우가 장 원수와 계속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 원수는 선우를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④ 동돌수는 자신의 진중으로 공격하러 들어오는 대봉을 보고 사납게 흘겨보고 머리카락이 위로 뻗친 채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있다. 이는 동돌수가 대봉에 대해 분개했음을 나타낸다. ⑤ 대봉은 주작장군을 파하고 현무장군을 베고 동돌수의 머리를 베어 칼끝에 꿰어 들고 큰소리로 흥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대봉이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며 흥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32. [출제의도] 배경의 기능을 이해한다.

대봉은 진언을 엄하여 후토신장과 기백너공을 불러 ㉔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급한 비가 크게 오고 너성이 진동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자 적진 장졸들이 겁을 먹고 대오를 지키지 못해 금사진이 무너진다. 그러자 대봉이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 명의 적군 장수들과 수많은 군사들을 죽인다. 이와 같은 활약상은 대봉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준다. 이렇게 활약한 대봉은 흥노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데, ㉕의 변화가 일어난다. 친지가 밝아진 것인데, 이를 통해 대봉에 의해 흥노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㉔으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전투에서 발휘된 결과가 ㉕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33. [출제의도] 서사의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장 원수는 장대에서 몽사를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는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드는 것을 확인한다. 장 원수는 이것이 촉날의 흥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하여 동으로 가는 체하다가 ㉑에 들어가 군사를 쉬게 한다. 수공에 의해 수세에 몰렸던 장 원수는 수공을 피해 ㉒로 가서 군사를 쉬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 원수는 자신의 군대를 뒤쫓아 온 촉날의 추격 병을 급습해 죽임으로써 자신의 군대가 ㉓로 가서 매복하는 것을 촉날의 군사들이 못 보게 한다. 장 원수의 군대가 ㉒로 간 것을 모르는 촉날의 군대는 결국 같은 편인 굴막대의 복병에 의해 공격을 당해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된다. 그리고 촉날은 평지로 달아나다가 석용달의 복병을 만나 남은 군사들마저 거의 다 잃고 도망간다. 촉날은 장 원수 군사가 ㉑에 매복해 있다고 생각하고 ㉒의 좌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장 원수를 만나 결국 죽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장 원수의 군사들이 ㉑에 있다가 ㉒로 간 것을 촉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 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장 원수는 선우에게 크게 외쳐 촉날이 이미 죽었으니 빨리 나와서 자신의 칼을 받으라고 한다. 이 말은 장 원수의 위용과 용맹함을 보여 주는데, 장 원수가 예지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대봉은 흥노왕에게 빨리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봉의 위용과 용맹함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세찬 물결과 진중에 싸이는 것은 인물들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수공에 의한 것과 적군에 의해 포위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장 원수가 촉날의 머리를 베고, 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베는 것은 모두 두 인물의 무용이 뛰어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인물 모두 무용이 뛰어난 것은 두 인물의 대등한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선우가 장 원수에게 패한 것에 놀라서 도망을 치고, 흥노왕이 대봉에게 패한 것에 놀라서 도망을 치는 것은 서사의 유사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⑤	37	⑤	38	③	39	④
40	④	41	①	42	①	43	①	44	②
45	④								

3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강연자는 강연 중간중간에 맞춤과 이음의 차이점, 원기둥의 홈에 창방과 하부 안초공을 결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청중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청중은 강연자에게 강연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④ 강연자는 강연 내용과 청중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

고, 청중에게 주의를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⑤ 강연자는 청중에게 경복궁 근정전에서 사용된 이음과 맞춤을 사례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강연자는 원기둥의 홈에 창방과 하부 안초공을 결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기둥 홈에 맞춤하는 하부 안초공의 모양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강연자는 [자료 1]을 활용하여, 부재들에 어떤 변형도 가지지 않고 두 부재를 이은 맞댄 이음과 부재들에 홈을 만들고 그 홈에 나비 모양의 부재인 나비장을 끼워 두 부재를 이은 나비장이음으로 이음의 결구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② 강연자는 [자료 2]를 활용하여, 부재들이 결구된 부분을 통해 장부 맞춤과 반턱맞춤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③ 강연자는 [자료 3]을 활용하여, 경복궁 근정전에서 창방, 평방, 안초공, 원기둥과 같은 부재들이 이음과 맞춤으로 결구되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④ 강연자는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결구되는 부재들의 방향에 주목하여 이음과 맞춤을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 1은 강연의 유익한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존의 배경지식을 떠올려 자신의 지식과 강연 내용이 연계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학생 3은 전통 건축물에 사용되는 부재의 모양이 구조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배경지식을 떠올려 나비 모양의 부재에 대한 강연 내용과 전통 건축물에 사용되는 부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연계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덕수궁에 있는 전통 건축물들의 구조를 결구 방법에 주목해 이해해 보려고 함으로써 강연자가 제안한 대로 강연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강연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 건축물이 수려한 미감을 자아내는 이유는 이음과 맞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전통 건축물 부재들의 결구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강연을 통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강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 2는 강연자의 설명을 통해 경복궁 근정전의 원기둥 상부와 부재들이 어떻게 짜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강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글쓴이의 글쓰기 방법을 파악한다.

2문단에서 치유 농업 여행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과 소감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치유 농업 여행에 참가해서 경험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사례에서 겪은 어려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치유 농업 여행에 참가한 경험을 다른 참가자의 경험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치유 농업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⑤ 치유 농업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지닌 장점을 다른 교육 여행 프로그램과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39. [출제의도] 검토 의견을 반영해 글을 고쳐 쓴다.

<보기>의 네 번째 문장에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행위가 미치는 객체를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지 않고, 해당 문장을 수정하였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중복되는 의미인 ‘도움이 되는’과 ‘유익한’ 중 ‘도움이 되는’을 삭제하였으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을 수정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였다. ②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탓’을 대신하여 ‘덕분’으로 어휘를 바꾸었으므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를 바꾸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③ 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 해당 문장을 삭제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⑤ <보기>의 다섯 번째 문장을 치유 농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더 깊이 이해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구체화하였으므로, 해당 문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40.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A]의 대화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는 학생 3의 발화를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여행을 통해 학업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소감문의 내용을 홍보하는 글에 포함하자는 의미인지 학생 3에게 확인하고 있다. [B]의 대화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는 학생 2의 발화를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여행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홍보하는 글에 제시하자는 의미인지 학생 2에게 확인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대화 맥락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다.

(나)에서 학생 3은 다음번 모임을 위해, 학생회 게시판에 올랐던 소감문에서 지난번 치유 농업 여행의 부족한 점이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논의할 사항을 메모해 오겠다고 하였다. 소감문에는 안전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참가자 안전 교육과 관련된 검토는 학생 3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학생 2가 작성한 초고에는 소 겨안기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고 했는데, (나)의 학생들 대화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답풀이] ② 치유 농업 여행에서 학업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소감문의 내용을 학생 2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치유 농업 여행이 준 만족감을 표현한 소감문의 내용을 홍보하는 글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치유 농업 여행 후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내용을 학생 2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문 조사의 만족도 결과를 홍보하는 글에 간단하게 언급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1문단에서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생명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2문단, 3문단에서 문제의 원인을 이용객의 캠핑 용품 사용 안전 수칙 미준수, 캠핑장 사업자의 소방 시설 미비, 관계 당국의 감독 소홀, 부주의한 난방 기기 사용 등으로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②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이나, 그에 대한 반박을 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심각하다는 문제 상황은 있지만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캠핑장 이용객, 사업자, 관계 당국이라는 문제 해결의 주체와 관련지어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 사고 없는 안전한 캠핑이 이뤄진다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가-2)는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로, 화재, 물리적 충격, 일산화 탄소 중독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신문 기사로 캠핑 중 발생하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증가한다는 점과 소방 시설의 미비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캠핑장 사고 사례를 보여 준다. (가-2)와 (나)를 활용하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와 화재 사고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보다 많다는 1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다. 또한 1문단에서는 캠핑장에서의 화재나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생명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이 크지만, 캠핑장 안전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화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보다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더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와 화재 사고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보다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1)은 통계 자료로 캠핑장 안전사고 중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캠핑장에서의 안전사고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가-2)는 통계 자료로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 중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58.1%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 중 화재 관련 사고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2문단의 내용에 58.1%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할 수 있다. ③ (나)는 소방 시설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캠핑장 사고 사례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이다. 이를 소방 시설의 미비와 관리 감독의 소홀은 화재의 조기 진화를 어렵게 하여 인명 피해를 키운다는 2문단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⑤ (나)의 신문 기사에는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예년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다)의 전문가 인터뷰에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보다 인명 피해율이 높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를 활용하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함에도 캠핑 중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3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①	38	④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①	44	②
45	③								

35.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한다.

‘(잡초를) 베-+-있-+-다’와 ‘(베개를) 베-+-있-+-다’가 어울려 줄 적에는 한글 맞춤법 제34항 [붙임 1]의 적용을 받는다. 즉 어간 끝 모음 ‘내, 귀’ 뒤에 ‘-어, -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준말의 형태인 ‘뻗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을 적용한다.

‘서툴다’(←서투르다)는 모음 ‘-’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르’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 ‘-어, -있-’이 결합된 형태의 준말의 활용형 ‘*서툴어, *서툴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머물다’(←머무르다)는 모음 ‘-’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르’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 ‘-어, -있-’이 결합된 형태의 준말의 활용형 ‘*머물어, *머물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높임 표현의 실현 양상을 파악한다.

ㄱ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한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 ‘여쭙러’가 사용되었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발음 사례를 탐구한다.

‘벽난로’에서는 중성 위치의 ‘ㄱ’에서 ‘ㅇ’으로의 음운

변동이, 중성 위치의 ‘ㄴ’에서 ‘ㄹ’로의 음운 변동이 각각 일어난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격 조사를 이해한다.

‘바르래’는 체언 ‘바랄’의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고, ‘그르세’는 체언 ‘그릇’의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다. 즉,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실시간 채팅’은 방송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실시간 채팅’에서 ‘셋별’이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시청자 1은 설문의 출처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쇼트폼의 사례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시청자 1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청자 3은 방송이 비판 의식 없이 쇼트폼을 소비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유의할 점을 알려 주어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에는 ‘고’가 있다. ‘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에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가)에서 게시물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용자의 수가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선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나)의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어 정보 전달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사용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에서 시간 제한을 생각해서 정보량을 조절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음성 언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민재는 환경 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 초안과 비교했다. 이어서 아준은 환경 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를 참고하여 범례를 따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참고해서 ㉡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민재는 두 번째 말에서 체험의 순서를 나타내는 화살표와 출입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모두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오답풀이] ① 윤아의 마지막 말에 행사 이름과 위치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민은 ‘제작’과 ‘다짐’의 공간 위치를 서로 바꿀 것을 제안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아준은 마지막 말에서 환경 단체 안내도에서 범례를 따로 둔 것처럼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에서도 범례를 따로 두자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윤아는 두 번째 말에서 ‘제작’이 활동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생’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